

익산시, 내년 예산 1조8078억원 편성

2024년 대비 3.4% 증가... 미래 성장동력 육성 ·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정주여건 개선 집중

익산시가 내년 예산안으로 1조 8,078억 원을 편성하고 21일 익산시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6,503억 원과 특별회계 1,575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7,483억 원 대비 595억 원(3.4%)이 증가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차질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다. 또한 지역 미래를 견인할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성장동력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152억 원 △홀로그래피 기술 사업과 실증 지원사업 등 41억 원 △푸드테크 연구 지원센터 구축 36억 원 △철단바이오 융합 연구개발 지원 10억 원 △자율주행 유망운송 스마트플랫폼 구축 23억 원 등을 반영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 259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27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0억 원 △다이로물자리사업 18억 원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15억 원 등을 편성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아울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분야에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435억 원 △전락

작물 직불제 70억 원 △농민 공익수당 8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부담금 지원 36억 원 △농식품부우치사업 8억 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익산형 청년근로수당 40억 원 △청년월세지원 20억 원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11억 원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3억 원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 4억 원 등을 편성해 지역의 미래인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쓴다.

풍부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명품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집중했다.

세부사업은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미륵사지·왕궁리유적) 164억 원 △백제왕궁 금마지 역사·문화공간 조성 65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33억 원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 20억 원 △익산다이로온 빛의정원 조성사업 17억 원 등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이를 위해 △인화동·유천생태습지 기후대응 도시숲 35억 원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30억 원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 25억 원 △신흥공원 경관사업 14억 원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27억 원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71억 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4억 원 등을 편성했다.

안전 및 국토·지역개발분야에는 △산복천 개선복구 318억 원 △여산·석탄·목천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6억 원 △신풍·용두산지구 급경사지 정비 8억 원 △도민안전보험 1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해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쓴다.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조성 43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71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5억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6억 원 등을 반영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872억 원 △생계급여 888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474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230억 원 △아동수당 106억 원 △부모급여(영아수당) 119억 원 △한부모가족양육비 지원 77억 원 등으로 취약계층과 노년층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아동보육 지원에 주력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28일부터 12월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장, 국가예산 확보 '막판 강행군'

이들 연속 국회·기획재정부 핵심 인사 만나 예산 증액 요청



정현을 익산시장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막판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익산시는 정현을 시장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국회를 방문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시장은 먼저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과 박정민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조규산 농업해양예산과장 등을 만나 △석재산업 지원센터 건립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이 확보를 적극 요청했다.

이어 오상우 복지에산심의관에게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의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강준모 국토교통예산과장에게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 △3D 비파괴 안

정성 검사시설 구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과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을 비롯해 기후환경과 강준이 사무관에게 필요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국회의원에게 주요사업인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소상공인연수원 건립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예산 확보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경건위원회

안전건설국 행정세무감사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0일 안전건설국 4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먼저, 환경부 부위원장은 무더위부터 냉방기 점검지원과 관련하여 경로당 495대 냉방기에 대한 필터세척, 냉매충진 등 점검용역을 4월 이전에 적기 완료할 것과 점검 대상 권역별로 분리 발주 등을 통해 단기간 점검기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점검을 시행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방재시설물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월명동 일원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월명 우수저류조 및 내항 배수펌프장 등 시설물의 철저한 사전점검을 주문하며, 우수관로 확대 및 압송배수관로 확충 등에 대한 준비를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방재시설물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저류조 등 방재시설의 주간 정기점검 시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음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점검 이행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침수피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3백만원 한도와 관련하여 국비 등 지원기준에 대해 시 자체적인 위로금 등 적극적인 지원 검토를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침수피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1~3차에 걸쳐 침수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에도 불구하고 지원율도 인지도가 낮아 신청이 누락된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금 신청 홍보·안내를 주문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경제 회복 의지 다져

'원하청 상생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 기업과 함께 원하청 상생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위기를 돌파한다.

익산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기업과 함께 '익산시 원하청 상생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노·사·민·정 분야의 위원과 동우회인(주), 두산퓨얼셀(주), 솔투스첨단소재(주), (주)티와이엠, (주)하림, (주)한솔페덱코 등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익산시 노사민정위원회는 '원하청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확산'을 목표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주요 기업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위기를 도약과 혁신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동선언 합의에 이르렀다.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은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공동체 구현 등을 담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

군산시는 21일 질병관리청 주최 '2024년 감염병 관리 콘퍼런스'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감염병 관리 콘퍼런스'는 인천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21일~22일 이틀 동안 진행됐으며, 관계 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단체 등 약 1천200명이 참석했다.

군산시는 △올해 법정 감염병 신고 기한 준수율 △2급 감염병 역학조사 실시 준수율 △6개월~13세 및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접종률 등 지표에서 우수한 실적을 냈다.

또한 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도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우수지자체에 선정되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맑은 물 공급 위한 도로 정비 공사

익산시는 상수도 배수관로 부설 공사과 노면 침하 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 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순포면과 여산면 일부 지역에 배수관로 부설 공사를 완료했다.

안정적상수도 공급을 위해 급수관 설치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상수도 부설 도로 노면정비 사업으로 24개소 4.2km 구간의 도로를 정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 일자리 민관산학 거버넌스 출범식' 열려

'새로운 시작, 희망의 군산' 슬로건... 유관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기대

군산시는 지난 22일 '새로운 시작, 희망의 군산'이라는 슬로건으로 25개 일자리 유관기관,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군산시 일자리 민관산학 협의체(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군산시 일자리 협의체(거버넌스)는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에 의거 지역 관계기관, 단체 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이다.

이번 협력체의 출범 배경은 군산시의 일자리 상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군산시는 시의 일자리 추진상황을 설명했으며,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 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군산시 청년들은 청년지원 정책, 전북산학융합원은 인력양성, 기업지

원, 일자리 추진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인터뷰 영상을 통해 구인 기업 △청년 창업가 △여성 취업자 △노인 취업자 4명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군산시는 지난 2017년, 2018년 군산조선훈 가동중단,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산업 침체 및 자영업 붕괴 속에서 고용 위기·산업위기 지정기간을 극복하였다. 또한 민선 8기 '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자립도시 군산'을 비전으로 일자리 4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시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는 △이차전지 등 신산업분야 및 군산 전복대병원 건립 등 대규모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지원 △고용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환경개선이 필요했다. 여기에

일자리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협의체(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되었다.

출범을 계기로 시는 관계기관과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실무추진위원회는 4개 분야 △지역 관계기관 협력 △인력양성 △지역산업 △일자리 정책 자문, 행정 분야로 구성되며, 거버넌스 참여 25개 관계기관과 단체가 상호 협력한다.

또한 일자리 기관·단체별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일자리 정책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등을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양되었다는 사실이 제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종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